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16  
2015.1112

#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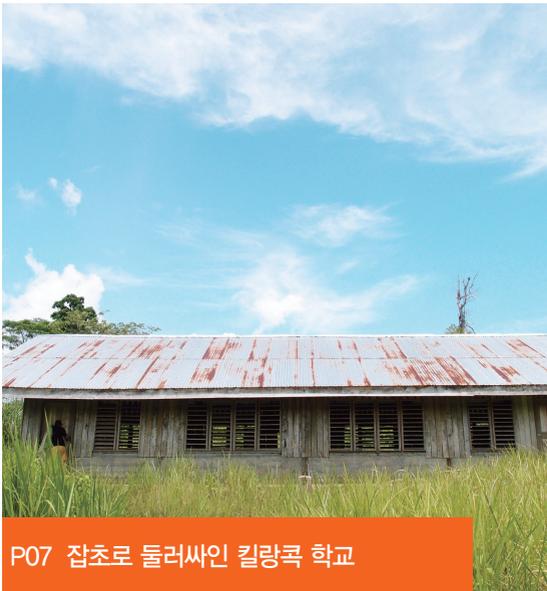
네팔 남동부 자낙푸르 구의 해발 2,000m 고지.  
대지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 대신, 천막과 양철판으로 지은  
임시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JTS가 찾아갔습니다.

###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를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개인위생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주민들



P07 잡초로 둘러싸인 킬랑콕 학교



P14 거제도 애광원 가을 나들이

# Contents | 목차



##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더러움은 물러가라! - 강명희
- 07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아구산 델 수르'를 방문하다 - 송우진



## 국내소식

- 14 함께 나누는 사랑  
JTS 안산 다문화센터에서 드리는 소식 - 유애경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이기심 봉사 - 이영임  
두복 어르신 가을잔치를 다녀와서 - 김한실  
대구제일여상 또래상담자 동아리 바자회 수익금 기부
- 24 함께 하는 사람들  
점심시간 미니 캠페인 - 정기성  
서른세 명의 봉사자와 함께한 작은 음악회 - 이종명  
주경야선 하는 양덕지부 이야기 - 하상의



## 활동터소식

- 31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중국 / 네팔 / 미얀마
- 38 후원인의 소리
- 39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 47 2015년 연말정산 안내

위생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주민들



## 더러움은 물러가라! - 등게스와리 주민 위생 교육

우기를 맞아 눈병이나 종기, 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주민이 늘어서 위생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잘 씻지 못하다 보니, 작은 상처가 커져서 큰 종기가 되고 급기야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생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강명희 활동가



인도에 와서 마주한 거리는 쓰레기와 먼지투성이였다.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온통 피죠티해 보였다. 처음에는 이곳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씻나 했지만, 사실은 물이 귀해서 씻을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다.

마을마다 우물이나 수동 펌프가 있기는 하지만, 매번 물을 길어다 써야 해서 불편하다. 그마저도 20~3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가구당 쓸 수 있는 물의 양도 많지 않다. 혹여 수동 펌프가 고장이라도 나면 펌프를 고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사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곳 마을에는 작은 개울조차 없지만, 우기에 비가 오면 여기저기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 시달리다 보면 바닥에 고인 빗물이라도 고마운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마찬가지다. 소가 먹을 감고 지나간 웅덩이에서 아이들은 소와 함께 뽕뽕거리며 천진난만하게 잘도 논다.

아이들이 흙탕물에서 놀다 보면 그 물을 조금씩 마시게 된다. 오염된 물을 접하고 가려워진 곳을 긁은 손 그대로 밥을 먹고 눈도 비비니, 설사도 하고 눈병과 종기로 고생하게 된다. 무덥고 습한 이곳 날씨 때문에 작은 종기가 생기면 잘 낫지도 않는다. 생활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니 상처 부위가 굼고, 결국에는 지바카 병원에서



항상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

“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높아서 전체 마을로 교육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의 손 씻기 위생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인도에서는 소똥을 짖과 섞은 후 손으로 주물러 모양을 만들고, 잘 말려서 땀감으로 사용한다. 소똥을 물에 풀어 벽에 손으로 바르고, 집 안 청소도 소똥 물로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면, 개인위생은 물론, 가족들의 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간단한 위생 상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질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지바카 병원에 동게스와리 주민들을 초청해서 위생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지바카 병원에서 거리가 먼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를 시행하면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위생 교육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 기획에서는 지바카 병원 가까이 에 있어서 영상 교육조차 시행되지 않았던 '자그디스푸르'와 '두루가푸르' 두 마을을 교육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과 마을 개발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하고 보니, 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높아서 전체 마을로 교육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계획을 수정하여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똥으로 집을 단장하는 여인



노트북으로 교육 영상을 보고 있는 주민과 아이들

교육 참가자 확인과 중복참가 방지를 위해, 사전에 교육 참가 쿠폰을 각 마을의 가구별로 지급했다. 마을 개발팀에서 열리는 마을 리더 회의에 참석한 리더들을 통해서 쿠폰 배포와 교육 참가 독려를 부탁했는데,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서 전체적으로 높은 교육 참석률을 보였다.

교육은 한 회에 두세 마을을 묶어 진행했는데, 교육 날이 되면 해당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교육장으로 총출동했다. 교육장에 들어서는 주민들은 마을별로 구분해서 앉게 하는데, 교육이 끝나고 선물을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위생 교육중인 까미스왈 선생님

지바카 병원의 의사이자 JTS 인도인 스태프인 까미스왈 선생님이 손 씻기, 손톱 깎기, 양치질, 방 청소하기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과 흐르는 물이나 너른 들판을 화장실로 이용하는 용변 습관에 관련된 주의사항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준비했다.

병원 강당에 주민들을 모아 손 씻기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지바카 병원 스태프인 삼부 씨가 부연 설명을 하고, 손 씻기 실습을 하도록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 밖에도 몇 차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 동게스리 주민 모두가 더욱 개인위생에 관심을 두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영상 시청이 끝나고 교육 내용에 관한 퀴즈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었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전체 교육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해서 주민들의 집중도도 높았다.



손 씻기 실습하는 아이들

회차별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여한 가구당 비누 두 장을 지급했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비스킷을 나누어 줬다. 이번 위생 교육은 산 너머 멀리 있는 ‘자르하리’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마을의 참석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덕분에 위생 교육 시간에 함께 진행한 가을 구충제 지급 프로그램까지 덩달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모든 마을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구충제를 지급하던 수고도 크게 덜게 되었다.



열띤 강연 중인 스태프 삼부 씨

처음으로 진행한 주민 위생 교육이었음에도,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시도한 점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던 것 같다. 이제 첫 시도이지만, 이를 계기로 동게스리 주민 모두가 더욱 개인위생에 관심을 두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몰리 학교의 전경



## ‘아구산 델 수르’를 방문하다

지난 10년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JTS가 해온 사업을 총정리하는 백서의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아구산 델 수르(Agusan del Sur) 도의 3개 학교를 방문했다. 아구산 델 수르 도는 민다나오 섬에서도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며, 특히 공산계열 반군인 신인민해방군(NPA)이 정부군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2011년, JTS는 아구산 델 수르 도 ‘로레토’ 군의 ‘몰리’, ‘킬랑콕’, ‘리보송안’ 3개 마을에 학교 건축을 지원했지만, 준공식을 앞두고 안전상의 문제로 방문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완공이나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다행히 전 로레토 군의원을 지냈으며 JTS를 도와주었던 앙와스 씨와 연락이 닿아, 10월에 안병주, 이진옥 활동가와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송우진 활동가

아구산 델 수르 지역은 JTS 사업지 중 가장 먼 곳이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새벽 4시에는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꼭두새벽에 일어나 짐을 싸고 숙소를 나왔다. 성실한 운전자 차리토 씨가 우리보다 먼저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잘 닦인 해안도로를 달리니 기분이 상쾌했다. 그러나 아구산 델 수르 도로 들어서니 길옆에 수많은 필리핀 국립경찰(PNP)과 정부군 초소가 보였고, 이 내 긴장되기 시작했다.

로레토 군에 가까워지니 밀림 사이로 뚫린 비포장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풀과 나무뿐이었다. 이런 경험은 난생처음이었다. 우리는 거대한 밀림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다. 이쯤 되니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걱정이 됐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내려서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가며 이동하다 보니,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로레토 군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군청에서 군수님과 리키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리키 씨는 앙와스 씨의 동생이며 로레토 군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몰리로 가는 여정에 우리를 안내해주실 분이였다. 군수님은 방문에 필요한 차량과 운전자, 안전요원, 그리고 도시락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두 분에게 감사했다. 우리가 오기 전 선배 활동가들이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일행은 리키 씨가 소개해준 여관에 들어가 피곤한 몸을 누이고 휴식을 취했다. 무려 11시간 동안 차를 운전한 차리토 씨는 숙소에서 도착하자마자 꿀아떨어졌다.



학용품을 받는 몰리 학생들

다음 날 아침, 리키 씨와 군수님의 전속 보디가드, 경호원 일행과 함께 몰리로 향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진창길이 나와서 오토바이로 갈아탔지만, 얼마 뒤 오토바이도 가지 못하는 길이 나왔다. 별수 없이 내려서 걸어가야 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해서 그런지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드넓게 펼쳐진 논을 보니 우리나라 시골 길을 걷는 느낌이 들어 정겨웠다.

1시간 남짓 걸어서 몰리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진으로도 볼 수 없었던 완성된 학교 건물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찼다. 교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반겨주자 기쁨은 배가 됐다. 이 학교에는 총 73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JTS가 지원해준 교사숙소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가져온 연필, 공책 등 학용품들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다.

이후 마을 리더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 마을 리더인 라밀 살라자르 씨는 이번엔 새로 선출된 젊은 리더였다. 2011년 당시 학교건축을 함께했던 전 리더 알렉산더 씨는 농사일하러 밖에 나갔다고 했다.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라밀 씨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려는 찰나 알렉산더 씨가 나타났다. JTS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사일을 져쳐두고 온 것이었다. 덕분에 알렉산더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알렉산더 씨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마을은 공산계열 반군인 NPA가 지나가거나 잠을 자고 가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이 마을을 NPA 본거지로 오해하고 “몰리 사람들은 모두 NPA”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곳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보다 명백한 평화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오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고기반찬과 쌀밥, 삶은 카사바를 푸짐하게 차려줬다. 그런데 우리의 식사가 끝나고 나니, 마을 어른들부터 차례로 나와 남은 밥과 반찬을 덜어가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만찬은 우리 일행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을 식사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먹도록 배려해준 것이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했다.

숙소에 돌아온 뒤 우리를 안내해준 리키 씨와도 작별했다. 리키 씨는 이후에 JTS가 이 지역에 사업을 재개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했다. 단 이틀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헤어지려니 섭섭했다. 잠시 로레토의 거리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앙와스 씨를 만났다. 내일부터는 앙와스 씨가 우리와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가 쉬었다. 더욱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두 번째 코스로 산속 깊숙이 위치한 킬랑콕 마을로 향했다. 산을 넘는데 무더운 날씨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중간에 강도 세 번이나 건너야 했다. 이렇게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주민들은 그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겨 학교를 지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대단했다.



잡초로 둘러싸인 킬랑콕 학교

한 시간 남짓 걸어서 킬랑콕에 도착했다. 물리 마을과는 다르게, 이 마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학교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연유를 들어보니, 학교가 완성되고 나서 2013년 초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그 뒤로 NPA가 마을을 점거하여 선생님이 떠나버렸다고 한다. 학교 건물은 NPA에 접수되어 숙소 겸 사상교육과 전투기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그 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개시되어, 마을 주민 중 4가구만 남고 모두 대피했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NPA가 이 지역을 떠났고 정부군의 작전도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정부의 승인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힘들게 지은 학교였을 텐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킬랑콕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 리더 마스칼로 보켈시코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가족과 전답이 모두 여기 있어 차마 마을을 버리고 떠나지 못했다고 하며,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어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고 학교가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념대립으로 인한 내전을 겪고, 가족과 친지들이 헤어져야 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떠올랐다. “JTS가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줘서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그의 말이 내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하루빨리 이 지역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들이 돌아와 학교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킬랑콕을 뒤로 하고 일행은 다음 목적인 리보송안으로 향했다. 리보송안 마을은 이번에 방문하는 3개 마을 중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가는 길에 보기에도 아찔한 외나무다리를 3번이나 건너야 했다. 어린이가 다니기에는 무척 위험해 보이는 길이었다. 이 마을에는 학교가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킬랑콕 마을 리더와의 인터뷰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 의원 길에르모 파블로 씨와 주민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려고 하니, 당혹스럽게도 학교는 문을 닫았고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았다. 연유를 들어보니 학교가 문을 열고 이듬해 4월까지 운영되었으나, 이 지역에서 정부군의 대대적인 NPA 소탕작전이 벌어져 선생님들이 철수했다는 것이었다. 앙와스 씨가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이 돌아와 학교 운영이 재개된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파블로 씨에게 학용품을 맡기고 선생님들이 돌아오면 학용품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교사숙소를 볼 수 있었다. 백서 작업을 위해 서른 곳이 넘는 마을을 답사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교사숙소를 지은 곳은 처음이었다. 가진 것이 변변치 않고 생계를 위한 농사일에 바쁜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할 짬도 없었을 텐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정도의 건물을 짓다니. 감탄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심까지 들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와 동행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준 앙와스 씨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2011년에 JTS를 만나, 함께 학교건축 사업을 했던 인연을 잊지 않은 것이 고마웠다. 헤어지기 전 앙와스 씨에게 서로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한국의 천 원권 지폐를 선물했다.



리보송안 학교 전경

아구산 델 수르 방문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끔 인터넷 뉴스와 필리핀 신문을 보면, 정부와 NPA의 대립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대립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내일 당장 정부와 NPA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킬랑콕 마을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학교 운영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다. 학교에 가는 아이의 순진한 눈망울이 언젠가는 평화의 한 줄기 빛이 되어 민다나오 섬을 밝혀주겠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지은 교사숙소

## JTS 안산 다문화센터에서 드리는 소식

함께하고 글쓴이 JTS 안산 다문화센터 - 유애경 센터장



안녕하세요,  
JTS 안산 다문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애경이라고 합니다.  
안산 다문화센터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센터는 스리랑카 분들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이 인연이 되어 스리랑카 공동체를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공동체는 회의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여러 공공기관의 장소를 빌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9월 13일에 60여 명이 저희 센터를 빌려 회의를 연 이후, 매달 꾸준히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리랑카 공동체 체육대회에도 초대를 받고,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열린 스리랑카 가사 공양 행진에도 초대받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전통춤을 추며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스리랑카 불교 법회도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본국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자는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춰, 스리랑카 스님을 모시고 여는 법회에 장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9월 26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스리랑카 법회에는, 백 명이 넘는 스리랑카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스리랑카 법회가 있던 지 며칠 후, 스리랑카인 한 분이 센터를 연락도 없이 찾아 오셨습니다. 어눌한 한국어로 “선물 주고 싶어 왔어요.”하며 노란 봉투를 주십니다. 뭐냐고 했더니 선물이라고 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법회 장소를 빌려주고 지원해 줘서 고맙다며, 친구들과 애써 번 돈을 모아 센터운영에 써 달라고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드리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여인의 귀한 아들이기도 하고, 한 여인의 남편이거나 귀여운 아이들의 아버지일 그분 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추억할 수 있도록, 다문화 센터는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이기심 “봉사” - 법륜스님과 함께한 2015년 거제도 애광원 가을 나들이

지난 10월 13일, 거제지부 봉사자들이 거제도 애광원 민들레 집의 중증장애 거주인 35명과 함께 경상남도 통영의 이순신 공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몸을 가누기 힘든 이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인지라 많은 봉사자가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거제지부에서는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봉사자들까지 모두 참여했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인근 통영, 고성, 마산 지부의 도움을 받아, 총 64명의 봉사자가 나들이에 참여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거제지부 JTS - 이영임 활동가

거제도 애광원 거주민들과의 가을 나들이를 위해 거제지역 JTS 봉사자들이 애광원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봉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거제도 애광원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어느덧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듯했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법륜스님의 ‘오늘 하루는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봉사하자’는 말씀에 봉사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도 가을 나들이를 환영해 주려는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하늘과 맑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는 참가자

손님을 맞는 거주인들의 핸드벨 공연과 슈퍼맨 체조로 봉사자들도 긴장을 늦추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민들레 집으로 향해서 함께 나들이를 떠날 거주인 짝꿍을 만났습니다. 짝꿍이 된 봉사자와 거주인은 둘 다 어쩔 줄 모르다가, 이내 서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아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긴장하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통영 가는 버스를 타는 시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거주인과 봉사자가 버스에 먼저 오르고, 침대형 휠체어나 일반 휠체어에 탑승한 거주인은 애광원 선생님과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느리지만 한 명씩,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눈 부신 햇살 사이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며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처럼 들떠있는 사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버스는 벌써 목적지인 통영 청소년 수련관에 도착했습니다.



애광원 거주인들의 슈퍼맨 체조 공연

고성지부 봉사자들이 식탁에 미리 생활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봉사자들은 식탁에 앞서 거주인들의 식사를 돕는 법을 익혔습니다. 식사 시간, 봉사자들은 소화가 쉽도록 음식을 잘게 자르거나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여 식사를 돕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주인은 옆에서 함께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애광원 선생님들이 나서서 거주인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위생을 성심성의껏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 곁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동하여, 이번 소풍의 하이라이트인 “통영 이순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니 마음이 탁 트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와서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광수 교수님의 설명으로 한산도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생생하게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원의 잔디밭에서 거주인과 봉사자가 함께 가을 바다의 정취에 빠져 있던 사이, 어느덧 법륜스님과 애광원 송우정 이사님의 마지막 말씀과 선물 교환을 끝으로 나들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민들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현관에서 헤어지기 싫다며 붙잡는 생활인을 들여 보내야 하는 상황에, 고개 돌려 눈물을 흘리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온 봉사활동인데, 거주인들과 하루를 보내며 오히려 우리 봉사자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여와 활동을 통해 내 마음의 치유를 받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이기심. 그게 바로 “봉사”가 아닐까요.



공원 잔디밭에서의 즐거운 시간



## 두북 어르신 가을잔치를 다녀와서

11월 5일 아침 7시 30분, 80여 명의 봉사자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JTS 정토마을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폐교된 학교를 한국JTS가 임대하여 노인 복지시설 겸 구호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 잔치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부산지부에서 준비해오던 잔치를, 올해에는 울산지부 봉사자들이 맡아 수고해주셨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울산지부 JTS - 김한실 활동가

행사에 앞서 전체 봉사자들의 여는 모임 후, 다시 11가지 담당별로 나누어 여는 모임을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운동장의 교문 앞에는 어르신들을 맞이할 봉사자들이 준비하고, 입구 반대편 나무 그루터기 주변에서는 어르신들을 직접 모셔올 차량 봉사자들이 마을지도를 보며 일감을 나눴습니다. 접수 담당자들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어르신들이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차로 모시고 온 다음, 잘 부축하여 강당까지 모시는 동선까지, 세세하게 일을 나누어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그 시각, 음식 준비팀에서는 봉사자들의 아침 김밥까지 챙겨준 다음, 어르신들의 점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오시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10시가 다 되었는데도 스물세 분 밖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180인분이나 준비했는데, 지켜보는 봉사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 초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잔치는 일단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특별히 초대된 장선옥 봉사자의 매끄러운 진행 덕분에, 다른 봉사자들도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장선옥 봉사자가 50년대 노래인 '검정고무신'을 불러드렸는데, 한 어르신은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누그러질 무렵, 다행스럽게도 마을 어르신들이 속속 도착하셔서 마침내는 153분이나 와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행사 날이 마을 콩 타작 하는 날이어서 일정을 바쁘게 마치고 참여하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도 도착하셔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신 후 즉문즉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문즉설을 경청하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세월을 거슬러 한때는 소년이고 소녀였을 적의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빛났습니다.

어르신들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다과를 챙겨드린 뒤, 봉사자들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식당을 지나가시며 "아이고, 이 많은 설거지는 어찌 다 하나!" 하고 걱정해주셨습니다. 봉사자들이 부축해드리면 "고맙데이. 어디서 왔노?"라고 물어주시고, 강당에서 진행 준비를 하는 서툰고 바쁜 봉사자들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셨습니다. 대접하러 왔는데 웬지 처지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풍물패 놀이와 어르신들의 노래자랑을 끝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한 신명나는 한마당을 잘 마쳤습니다. 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을 처음 모셨던 것처럼 맥으로 모셔다드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애써주었습니다. 집으로 향하시는 길에 행여나 여흥의 아쉬움이 남을세라 어르신들께 간식거리를 챙겨드리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참 흐뭇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배웅 후, 담당별로 뒷정리와 청소를 했습니다. 뒷정리를 마무리한 다음에는 오늘 행사를 치른 느낌을 나누고 내년에 더 나은 행사를 위해 봉사자들끼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낌을 나누는 중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으로 눈물짓는 봉사자들의 얼굴에서 따뜻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가 더 큰 대접을 받았나 봅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행사장에 모인 어르신들



신명나는 풍물패와 함께한 어르신 잔치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



어르신을 맞는 봉사자들



## 대구제일여상 또래상담자 동아리, “함께 사는 코스모스예술제” 바자회 행사

지난 10월 28일,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행사 ‘코스모스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의 바자회 코너에서 대구제일여상 또래상담자 동아리 학생들은 ‘오븐찹쌀떡’을 직접 만들어 포장하고 판매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오븐찹쌀떡을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한국JTS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순 선생님은 기부에 대해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기부 문화 체험을 통해 나눔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최정은 학생은 “떡을 제작해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고 다 팔려나가 보람도 컸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친구들에게 소중히 전달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 점심시간 미니 캠페인

함께하고 글쓴이 광명지부 JTS - 정기성 활동가

점심시간. 30분간 깜짝 JTS 홍보를 나갔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건너편의 시청과 관공서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1시 50분부터 12시 20분은, 홍보 시간으로 아주 적절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니, 홍보도 되고 안내지를 받아가는 분도 차츰 늘고 있다.

캠페인을 하면서 보면 JTS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모금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라고 의혹을 품는 분도 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홍보해서 더욱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는 우리의 활동을 잘 알릴 수 있는 피켓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금한 돈이 정말 잘 쓰이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시간도 짧고 모금액도 많지 않은 캠페인이었지만 매주 하다 보니 참여하는 학생들도 뿌듯해 하고 봉사의 맛을 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한 거리모금이 한 달이 넘어가다 보니, 주변 사무실의 직원들도 매주 참여를 해준다. 이웃 건물 경비원 아저씨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천원밖에 못 한다”고 하시면서 기부를 해주신다.

거리모금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굳이 거리에서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 주변에 꾸준히 알려서, 내 주변 사람들부터 동참하게 하는 것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가을비에 젖은 낙엽과 단풍이 쌓인 길을 걷고 싶은 화요일. 오늘은 캠페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간편하게 피켓과 모금함만 들고 5명이 나섰다. 비 온 뒤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다.

“천원이면 두 명의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노모와 함께 길을 가던 아주머니께서 가방에서 천 원을 꺼내 건네주신다.

“아가씨, 아가씨!”하고 크게 외쳐 부르는 소리에 설마 하고 뒤 돌아보니 정말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돈을 얼른 건네주고 가시는 아저씨를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단풍만큼이나 고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





## 함께 만드는 행복

### - 서른세 명의 봉사자와 함께한 작은 음악회

함께하고 글쓰기 안양지부 JTS - 이종명 활동가

“우리가 모금한 돈 천 원으로 굶주리는 아이 두 명을 살릴 수 있다.”

“아빠, 근데 이건 구걸하는 거 아닌가요? 거지처럼요.”

“아니, 내가 먹고살기 위해 하면 구걸인데, 남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것은 봉사란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선한 행동이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가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곳 안양에서 평생을 살아서 아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나름 이 지역에서 체면이 있는 제가, 한적한 곳도 아니고 안양의 가장 변화가인 범계역 광장이라니, 부담감이 물려왔습니다.

“아들, 너도 부담되고 아빠도 부담되니 역할 분담을 해보자.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해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빠가 말 할게. 저기 걸어오는 분한테 한 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구호단체 JTS에서 나왔습니다.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

어라.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구호단체 JTS……”

이렇게 한 열 번 정도 하고 나니, 아들과 저 모두 말이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떤 아기 엄마가 천 원짜리 한 장을 모금함에 넣어 주었는데, 아들과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원의 가치가 우리 두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점차 익숙해지고 기술도 조금씩 쌓이면서 모금 성공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끝나고 보니 모금함에 제법 많은 성금이 쌓였습니다. ‘최소한 아이 오십 명은 살렸다’하는 뿌듯한 마음을 아들뿐만 아니라 봉사 참가자 모두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라는 두려움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사라졌다가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어설프게 시작한 거리모금 봉사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안양지부 JTS 거리모금 담당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사전 교육을 담당하면서, 거리모금 비결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정말 어렵지 않아요.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모금 많이 할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걸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제법 선배다운 이야기도 한답니다.

지난 10월에는 범계역 광장 중앙무대를 빌려 작은 음악회와 함께 거리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올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색소폰 연주와 봉사자 자녀들의 클래식 악기 연주를 함께하니, 봉사자들의 참여율도 높고 시민들의 반응 또한 좋아, 이번에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고 나니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펴고, 현수막을 붙이고, 포스터를 세우고, 모금함을 챙기는 능숙한 봉사자들의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모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리모금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고, 음악 소리에 맞춰 모금함을 가슴에 꼭 안은 봉사자들이 시민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JTS 모금 취지를 알리는 한경림 활동가의 간절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고, 안양지부의 예쁜 춤꾼들이 오정희 활동가의 기타반주에 맞춰 '행복해요'라는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과 모금함을 들고 모금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시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른세 명이라는 최대 봉사자들이 참가한 이번 거리모금을 통해 616,710원을 모금했습니다. 천여 명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주경야선 하는 양덕지부 이야기

“굶어 죽는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포항 영일대 바닷가에 소연이의 목소리가 카랑카랑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를 따라 모금 활동에 나선 8살 소연이가 한 음절 한 음절 힘주어 말하자, 저만치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고 갑니다. 오늘은 양덕지부 저녁부 JTS 거리모금 세 번째 날. 양덕지부 봉사자들과 최연소 봉사자인 소연이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양덕지부 JTS - 하상의 활동가

작년 12월에 양덕지부가 설립되었지만, 저녁부가 거리모금을 시작한 건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그동안은 주간부의 거리모금 캠페인만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저녁에 활동하는 저녁부의 여건상 적극적인 거리모금 활동이 녹록지 않았었는데, 박잠순 활동가께서 마음을 내어 담당자로 나서주신 덕분에 거리모금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모금을 앞두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조금 긴장도 되었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는 것과 담당은 또 다르니까요. 책임감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하자고 마음을 내어보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는 무사히 정착한 것 같습니다.”

보통 토요일 저녁은 일주일의 노동을 풀기 위해 여가를 즐기는 시간일 텐데, 오늘 이곳에 모인 봉사자들은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피로는 날려버리고, 푸르디푸른 에너지를 새로 얻어갑니다. 참으로 희한한 '봉사'라는 이름의 에너지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을 행하는 주경야선(周經夜線)의 삶, 바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봉사자들의 삶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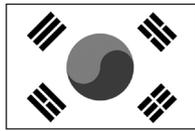
포항 영일대 바닷가는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완만한 언덕에 산책로가 잘 가꿔져, 가볍게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밤이면 멀리 포스코의 불빛이 이 일대의 야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며 특히, 여름철 불빛축제로도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 영일대가 이제는 매주 두 번째 토요일 저녁,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JTS 거리모금을 알리는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Korea 국내소식



### 1. 스리랑카 가사 공양 법회 의료지원

11월 8일, 평택 마하위하라 사원에서 열린 스리랑카 가사 공양법회에 JTS 안산 다문화센터 의료지원 봉사팀이 방문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와 치과의사, 치위생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봉사팀은, 법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과와 내·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침 법회에 참석했던 주한 스리랑카 대사님도 진료소를 방문하여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 India 인도



### 1. 기숙학습 수료식

성적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기숙학습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료식은 장기결석했던 초등학생 3명을 포함, 학생 28명과 뿌리앙카 교장 선생님, 교사 6명, 그리고 인근 마을 교사 4명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습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선생님들이 만든 영양가 높고 맛있는 요리 덕분에 아이들도 한층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일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성적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 2.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 인도 어린이날

인도의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인도의 첫 수상 네루의 생일인 11월 9일입니다. 네루를 기념하여 초와 향, 꽃을 올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침 조회시간에 알려주었던 상식으로 퀴즈도 내고, 미술쇼와 연극, 노래, 춤을 선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했지만, 공연하는 사람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두 달간 개근한 146명의 학생은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목도리와 맛있는 간식 선물까지, 아이들이 웃고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신난 하루였습니다.



### 3. 학교를 가꾸는 퇴비팀

수자타 아카데미의 중학생들은 오전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자원봉사 분야에 퇴비를 만드는 팀이 추가됐는데, 퇴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 활동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장 정비를 시작한 첫날, 퇴비장의 모습을 보고 못 하겠다며 울던 아이들이 이제 일을 척척 잘합니다. 퇴비장에서 만든 퇴비로 실험용 밭도 만들어 보고, 학교 곳곳의 길을 정비하고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 4. 지바카 병원 이동진료

지바카 병원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병원을 찾아오기 힘든 12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약을 처방해주는 이동진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병원 스태프가 마을을 방문하면 약을 나눠 줄 자리를 마련한 다음, 온 마을을 돌면서 “아픈 사람은 약 받으러 오세요”라고 알립니다. 어른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타기 위해 모여든 사이, 아이들은 노트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 5. 성미산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을 방문

한국의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 학생 8명이 인도JTS를 방문했습니다. 마을개발팀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3일간 마을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각 마을의 극빈자 가정을 방문하여 집 상태와 생활정도를 점검하고, 마을의 쓰레기도 함께 주웠습니다. 학생들도 그냥 지나치면서는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 6. 동게스와리 마을 리더 워크숍

모든 인도인이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곳 - 갠지스 강이 흐르는 바라나시로, 이틀간 동게스와리 마을 리더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리더 13명과 현지인 스태프 3명, 마을개발팀 활동가 3명이 동행했습니다. 마을 리더 워크숍은 마을 리더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갖고 JTS의 사업방향을 공유하며, 동게스와리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 Philippine 필리핀



### 1. 가가후만 학교 보수

지난 2003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가가후만을 방문했습니다. 많이 낡은 학교 건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과 보수 계획을 논의하고, 지방 정부의 협력을 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자재 배달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푸드 포 워크(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제공하는 지원방식) 지원과 목수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 2. 백서팀 아구산 델 수르 지역 방문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아구산 델 수르의 몰리, 리보송안, 킬랑콕 3개 학교를 방문해서 모니터링과 문구류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2011년 건축을 시작한 이후 공산 반군의 활동으로 치안이 불안정해서 방문할 수 없었고, 완공된 모습과 운영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군청의 협조를 얻어 3개 학교를 모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몰리 학교는 1학년 교실로 사용 중이고, 리보송안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킬랑콕은 안타깝게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리더는 마을이 평화로워져서 주민들이 돌아오고 학교가 열리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 3. 맘팔라나이 생활 전통 문화 학교 방문

10월 21일, 부키드논 주 란타번 군에 있는 송고 전통 마을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맘팔라나이 생활전통문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 학교는 필리핀 JTS에서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시류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는 부키드논 주의 딸란딕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지은 전통문화 교육 기관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 JTS 백서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4. 커피교육

JTS 센터가 있는 실리폰 지역 주민들의 주 수입원은 커피입니다. 주민들이 별도로 커피 재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야생 커피 열매를 채집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판매하는 커피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필리핀 세부에서 커피 사업을 하시는 봉사자를 강사로 모시고, 커피를 수확하고 건조하는 방법과, 커피 알을 분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리폰 지역 60명의 주민에게 교육했습니다.



### 5. 알라원 방문

교사 숙소 보수에 쓰일 목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러 알라원을 방문했습니다. 커피 교육을 하신 강사님이 커피 재배상황을 보러 간 김에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하셨기 때문에, 알라원 아이들이 신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JTS는 오랫동안 선생님이 없어 운영되지 못했던 알라원 학교의 교실과 교사숙소를 보수하고, 선생님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6. 마놀로폴티치 학교 건축

새 학교를 짓고 있는 끼한아이 마을은 하늘이 아주 예쁜 곳입니다. 2년 전부터 마놀로폴티치 군청과 협조하여 세 곳의 학교를 계획하였고, 현재 그중 두 곳의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끼한아이 학교는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이 학교들에 학생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1. 중국 용정시 거리청소부 동복 지원

11월 18일, 중국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환경미화원들에게 형광색 청소복 300벌을 지원하고, 용정시 내의 탈북 가정 어린이 및 한족 취약계층 가정에는 내복 500벌을 지원했습니다.



1.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사업 시작

지난 4월 25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파괴된 네팔의 재건을 돕기 위한 조기복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JTS는 네팔 남동부 자낙푸르 구에 있는 3개 학교를 복구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설계를 마치고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들은 해발 2,000m의 고지에 위치한 곳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현재 네팔 내부의 사정으로 물류와 교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무너진 건물 옆에 세운 임시 건물과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2016년 2월 말까지 첫 번째 학교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노희경 작가님의 지진피해 긴급구호 모금 완료

지난 8월 19일부터 노희경 작가님의 블로그를 통해 진행된 네팔 지진 긴급구호 모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산문집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전편을 연재하고, 해피빈의 콩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모금행사를 통해 약 35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 사업에 기부되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노희경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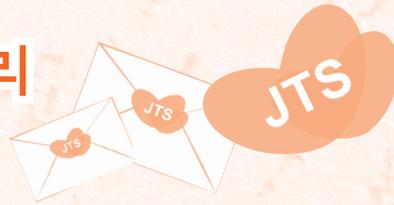
1. 미얀마 홍수피해 3차 긴급구호

미얀마 서부의 친(chin) 주는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입니다. 주 경계 안쪽 대부분의 지형이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해발 2,700m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홍수 뿐만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을 맞게 될 고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담요를 비롯하여 긴급 복구를 위한 건축자재를 지원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장도연, 뿌리앙카, 박종화, 주연우, 박영민, 강명희, 김미정, 심애남, 정유진, 정동표, 김윤미
필리핀	안병주, 김희자, 박영일, 원석환, 이진욱, 송우진, 홍민지, 박시현, 오정심, *김수, *이정자

## 후원인의 소리



심은우 200일. 모든 굶주린 아이들이 배고픔을 벗어나길 발원합니다.

- 김효미 -

멀리 뉴질랜드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 이희재 -

이민호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박동수 -

동생 조진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회향합니다.

- 조경화 -

이규빈이라고 6살 아이입니다. 착하고 현명하고 밝게 자라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빈 -

조김현어린이 극락왕생기원

- 조병준 -

이갑훈영가 해탈기원

- 조혜진 -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며 기부하는 도너그래프입니다. 북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해주세요.

- 권현우 -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통신그룹 학생들이 체육대회에서 받은 상금입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진 -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 임양호 -

먼저 가신 부모님..바르게 잘 살고 덕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 박용선 -

유주 무주 고향 영가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남북통일 기원합니다.

- 허향미 -

우주야 생일축하한다. 우린 너의 선택을 믿어, 이해하게 된 시간이 길어 미안하고 우리에게 와 줘 고맙구나

- 이해금 -

10월 24일이 저희 아기 돌입니다. 함께 나누며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

- 함보현 -

필즈수학원에서 학생들이 수학노트를 한권씩쓰게 되면 5000원씩 기부하게되고, 10권이 될때 마다 50000원의 성금을 내기로 약속하여 오늘 첫 10번째로 수학노트를 제출한 학생이 있어서 내게 되어 기쁩니다. 북한어린이 돕기에 힘을 보탭니다.

- 이창재 -

## 특별후원금 (2015. 9. 01. ~ 2015. 10. 31.)



### 2015년 9월 북한결연

JTS북한어린이돕기

500,000

강민준 10,000

고혜원 50,000

김경돈 300,000

김경미 30,000

김민호 1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30,000

김재익 50,000

김정미 500,000

김효미 50,000

나경원 50,000

나경주 50,000

남주미 30,000

문학숙 50,000

박기욱 100,000

박기홍 100,000

박상원 50,000

박원임 10,000

박준 100,000

백상봉 10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오금실 16,000

유경희 80,000

유민재 50,000

윤정빈 50,000

윤추찬 1,000,000

음세종 100,000

음준경 100,000

음준용 100,000

이미란 50,000

이요한 30,000

이진일 30,000

이희재 160,000

임보경 30,000

임희정 200,000

전민우 100,000

조경자 500,000

조병준 5,000,000

조혜진 50,000

최성현 150,000

하지민 10,000

한성욱 50,000

한양희 50,000

한진범 50,000

허대영 10,000

홍순임 100,000

강민준 1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현정 10,000

나희원 5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유민재 50,000

이진일 20,000

이희재 160,000

강민준 10,000

김경란 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30,000

김현정 10,000

나경주 50,000

박종임 1,000,000

백상희 400,000

송옥실(홍천사) 300,000

윤정빈 50,000

이성희 50,000

이진일 20,000

이희재 160,000

임보경 30,000

임희정 200,000

조경태 50,000

한동규 5,000

한성욱 50,000

고은숙 2,000,000

고혜원 50,000

곽도순 30,000

구다인 100,000

권영세 50,000

권은하 20,000

권태숙 50,000

금삼승민승필 30,000

김경미 50,000

김경희 5,000

김계남 1,000

김기하 5,000

김말숙 10,000

김말숙 10,000

김말순 100,000

김미경 30,000

김미영 100,000

김미옥 5,000

김민수 30,000

김민호 10,000

김봉생 10,000

김서영 500,000

김선기 500,000

김선남 100,000

김성열 100,000

김성훈 10,000

김수연 30,000

김수영 10,000

김유진 30,000

김윤분 50,000

김은숙 100,000

김응 300,000

김재익 50,000

김정희 100,000

김지연 500,000

김지오 300,000

김진경 20,000

김진경 20,000

김진희 50,000

김태균 200,000

김태균 300,000

김태희 150,000

김현숙 50,000

김현정 10,000

나경원 50,000

나호연 50,000

동화 50,000

류수진 30,000

문관우 10,000

미양고(만화일라스트) 60,300

박계만 10,000

박관자 10,000

박규흠 10,000

박동수 100,000

박상철 100,000

박순양 20,000

박영진 10,000

박예나 100,000

박원임 10,000

박용선 150,000

박유란 100,000

박정속 300,000

박정심 30,000

박정연

(행복한마음코칭센터) 100,000

박정희 50,000

박정희 100,000

박지연 500,000

박지오 300,000

박진경 20,000

박진경 20,000

박진희 50,000

김태균 200,000

김태균 300,000

김태희 150,000

김현숙 50,000

김현정 10,000

나경원 50,000

나호연 50,000

동화 50,000

류수진 30,000

문관우 10,000

미양고(만화일라스트) 60,300

박계만 10,000

박관자 10,000

박규흠 10,000

박동수 100,000

박상철 100,000

박순양 20,000

박영진 10,000

박예나 100,000

박원임 10,000

박용선 150,000

박유란 100,000

박정속 300,000

박정심 30,000

박정연

(행복한마음코칭센터) 100,000

박정희 50,000

박정희 100,000

박지연 500,000

박지오 300,000

박진경 20,000

박진경 20,000

박진희 50,000

김태균 200,000

김태균 300,000

김태희 150,000

김현숙 50,000

김현정 10,000

나경원 50,000

나호연 50,000

동화 50,000

류수진 30,000

문관우 10,000

미양고(만화일라스트) 60,300

박계만 10,000

박관자 10,000

박규흠 10,000

박동수 100,000

박상철 100,000

박순양 20,000

박영진 10,000

박예나 100,000

박원임 10,000

박용선 150,000

박유란 100,000

박정속 300,000

박정심 30,000

박정연

(행복한마음코칭센터)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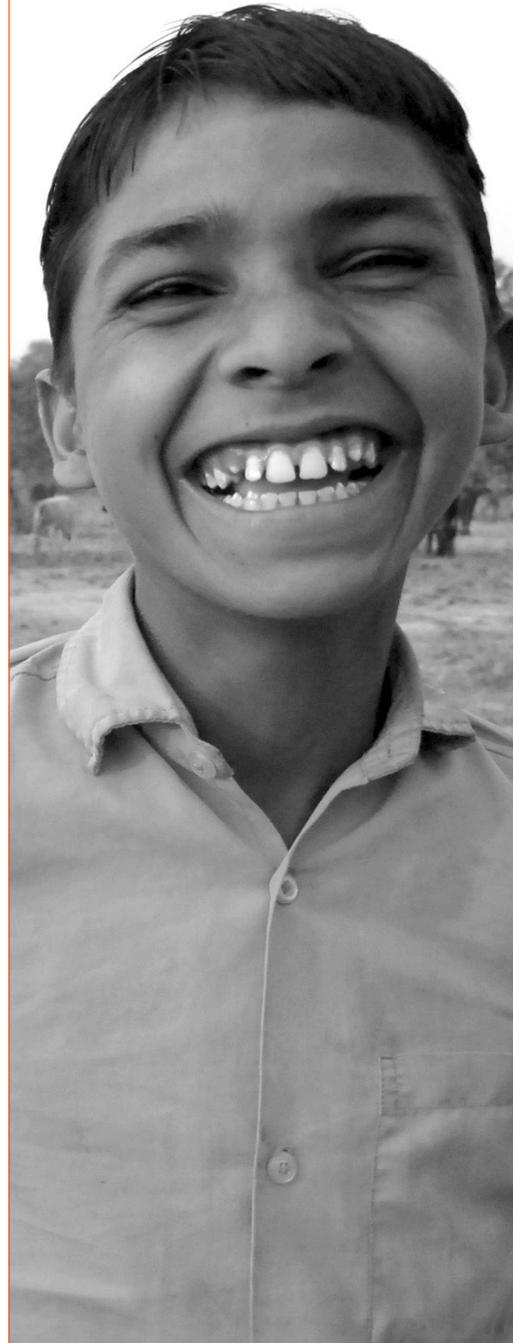
신재은 10,000	이인철 10,000	하종혁 30,000	주추미 1,000,000	이동진 100,000	신종섭 10,000	강담정 200,000	김운하 50,000	박옥지 30,000	안병주, 김희자	이정순 100,000	최광남 200,000
신종섭 10,000	이정란 10,000	하지민 10,000	하지민 10,000	이요한 30,000	오원찬 20,000	강민경 40,000	김운하 50,000	박원임 10,000	20,000	이정아 500,000	최기진 30,000
안난희 50,000	이정여 5,000	한승명살래 18,800	한동규 5,000	이유진 20,000	이규빈 100,000	강선복 100,000	김운하 30,000	박유란 100,000	안자현 100,000	이정여 5,000	최순희 100,000
안병주, 김희자 20,000	이정호 150,000	한양희 50,000		이재만 20,000	이진일 20,000	강수윤 200,000	김운하 50,000	박윤정 30,000	안장원 500,000	이주영 50,000	최승 940
안복순 50,000	이준희 20,000	함미정 30,000	<b>2015년 10월 북한결연</b>	이진일 30,000	이태호 100,000	강은경 400,000	김운하 50,000	박정숙(노원)	안창을 70,000	이주영 50,000	최승 940
안산다문화센터 95,000	이창하 2,000,000	함미정 30,000		이창재 50,000	이한신 100,000	강정호 18,000	김운하 30,000	300,000	양승돈 100,000	이주형 10,000	최승 940
안영빈(안영봉) 50,000	이혜준 258,260	허영선 100,000	(주)인서정공 150000	이태호 100,000	이한신 100,000	강해나 20,000	김원태 50,000	박정심 30,000	양희웅 250,000	이준희 50,000	최윤정 67,330
안홍석 500,000	이현정 500,000	혜륜스님 500,000	곽도순 10,000	이한신 100,000	이향선 10,000	과천고도서부 28,210	김유경 300,000	박종덕 100,000	오금실 16,000	이태경 150,000	최윤정 50,000
양동산 40,000	이화영 20,000	황기인 10,000	권도영 10,000	이향선 10,000	최성현 80000	김영옥 30,000	김윤분 50,000	박화자 10,000	오금옥 10,000	이태호 100,000	최재운 노원 37,350
연승환 300,000	이희재 160,000	황삼동 100,000	권현우 14,000	최이준 1,000,000	최항진 40,000	제순희 30,000	김은숙 100,000	반미정 30,000	오미숙 58,000	이필선 100,000	탁경자 100,000
오대환 60,000	임순화 30,000	황영애 10,000	김경미 30,000	한동규 5,000		권태희 300,000	김은숙 100,000	배동규6047	우원찬 20,000	이한신 100,000	탁윤택 30,000
오윤경 10,000	임양호 200,000		김영미 30,000	한성욱 100,000	<b>필리핀</b>	금삼승민승필 31,000	김은정 320,000	100,000	우원석 2,000,000	이해금 50,000	프리자아 20,000
오윤경 10,000	장명진3249	<b>긴급구호</b>	김남금 50,000	한양희 50,000		김경범 4,000	김은주 50,000	배명섭 100,000	우원석 3,000,000	이호균 50,000	하수화 31,260
오즈악국김현아 100,000	장미정 100,000	강민준 10,000	김명호 300,000	한진범 60,000	(주)인서정공 50,000	김경아 100,000	김이영 100,000	배성호 50,000	우원석 1,000,000	이희영 500,000	하용득 300,000
오화경 200,000	장세영 20,000	김규환 100,000	김문곤 30,000	허대영 10,000	곽도순 10,000	김경희 5,000	김정수 50,000	배수정 50,000	우원석 1,000,000	장미현 1,000,000	한동규 5,000
우원석 900,000	장영애 10,000	김민호 10,000	김민경 10,000	허항미 200,000	김성훈 10,000	김남훈 100,000	김재재 1,000,000	배진숙 60,000	유미화 100,000	이한신 100,000	한양희 50,000
원철웅 90,000	정경아 30,000	김승희 20,000	김성훈 20,000	황경란 100,000	김승희 30,000	김도경 50,000	김지영 20,000	백명아 8929	유재호 10,000	장석현 양평 53,730	함미정 30,000
유미향 50,000	김유진 30,000	김재익 50,000	김승희 30,000		김정수 50,000	김동우 5,000	김향희 300,000	24,510	윤경미 30,000	장순석 10,000	함보현 200,000
유민재 50,000	김재익 50,000	김현정 10,000	김한숙 25,000	<b>인도 및 제3세계</b>	김현정 10,000	김말숙 10,000	김현아 오즈악국	백호원 양평 14,630	윤덕현 100,000	장장원 100,000	허항미 100,000
유영애 100,000	김희선 20,000	김호미 50,000	나경주 50,000		나경원 50,000	김명규 100,000	100,000	변동해 10,000	윤명실 1,000,000	장철수 50,000	허항미 200,000
유재한 200,000	김희선 20,000	김희선 20,000	남주미 30,000	(주)인서정공 100,000	서광명 50,000	김미경 30,000	나연우 10,000	분다씨가족보시	윤미경 50,000	장현련 10,000	홍다연 50,000
유재호 10,000	나희원 50,000	김희선 20,000	문진영 50,000	강시재 10,000	신재영 10,000	김미성 50,000	네팔지진구호 10,000	100,000	이귀숙 20,000	전재현 5,500	홍성호 65,000
유춘자 파주법당 46,740	문지영 30,000	김희선 20,000	박상원 30,000	곽도순 10,000	신종섭 10,000	김미옥 3,000	노하진 10,000	서울우유성동	이규빈 100,000	정경아 30,000	황영애 10,000
윤경미 30,000	박서이 30,000	김희선 20,000	박수연 30,000	김민경 10,000	오원찬 20,000	김미운백일 300,000	노하진 10,000	150,000	이래열 30,000	정길원(정정옥) 1,000,000	황지나 33,000
윤미경 5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박원임 10,000	김성훈 10,000	웰브랜드 50,000	김민수 30,000	대동어린이집	225,911	이리라 720,000	1,000,000	후원금 100,000
윤미라 8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박희영 1,000,000	김수현 1,000,000	아규빈 100,000	김병진 30,000	154,940	설경자 225,911	이미경 500,000	정미진 10,000	jts전체사업 4,000
윤원식 6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배순선 200,000	김수현 1,000,000	이진일 20,000	김삼선 3,000	류수진 30,000	손정희 노원 83,340	이미경 500,000	정민서 서초 1,000,000	
윤철상 10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백상봉 100,000	김승희 30,000	이태호 100,000	김석희 400,000	멜번후원금 947,058	손현희 9,635	이미향 10,000	1,000,000	<b>긴급구호</b>
이미란 2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복한결연 10,000	김승희 30,000	이한신 100,000	김성식 42,280	무기명거제 100,000	손현희 10,000	이보경 50,000	정스런 50,000	
이미향 1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소민경 100,000	김현정 10,000	필리핀제3세계사업 10,000	김성훈 10,000	문중인 100,000	송중수 100,000	이소정 191,824	정도희 28,000	0173624453
이성임 10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손현숙 500,000	김형숙 113,023		김수연 30,000	문중인 100,000	신동근 50,000	이승용 20,000	조귀선 20,000	100,000
이소영 1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신재영 10,000	김홍필 100,000	<b>JTS 전체사업</b>	김수영 10,000	박계만 10,000	신동현 10,000	이승호 40,000	조양순 60,000	2110066311
이영우 10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안병석 5,000	나경주 50,000		김수필 100,000	박규흠 10,000	신승희 노원 50,000	이영숙 100,000	조영자 20,000	20,000
이요한 2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안재만 80,000	도연가마 50,000	0173624453	김수윤 10,000	박복동 105,000	신재영 10,000	이영우 50,000	조현성 60,000	(주)인서정공 30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오원찬 20,000	박상원 20,000	2110066311	김승희 30,000	박선영 50,000	신재은 10,000	이완석 10,000	진영희 1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송정숙 800,000	서광명 50,000		김애경 10,000	박순양 20,000	신종섭 10,000	이요한 20,000	차지은 30,000	가은숙 64,86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신재영 10,000	손지영 30,000		김영선 100,000	박승자광주 10,000	아무개 50,000	이원형 10,000	채호동 채호성 60,000	강담정 20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아규빈 100,000	송정숙 800,000		김용안 23,060	박시현 32,000	안병석 10,000	이은경 100,000	천윤미 30,000	강민경 40,000
	배서이 30,000	김희선 20,000		신재영 10,000					이인철 10,000		강선복 100,000

강수윤 200,000	김수연 30,000	멜번후원금 947,058	북한결연 10,000	오미숙 58,000	이주영 50,000	진영희 10,000
강시재 10,000	김수영 10,000	무기명거제 100,000	분다씨가족보시	오원찬 100,000	이주형 10,000	차지은 30,000
강은경 400,000	김수윤 10,000	문종인 200,000	100,000	오해주 50,000	이준희 50,000	채호동 채호성
강정호 18,000	김수필 100,000	문진영 100,000	서경희 130,000	우선영 3,000	이진일 70000	60,000
강해나 20,000	김수현 1,000,000	박계만 10,000	서광영 200,000	우원석 7,000,000	이창재 50,000	최광남 200,000
과천고도서부 28,210	김승희 150,000	박규흠 10,000	서울우유성동	웹브랜드 50,000	이태경 300,000	최기진 30,000
곽도순 50,000	김애경 10,000	박복동 105,000	150,000	유미화 100,000	이태호 500,000	최신숙 1,000,000
권도영 10,000	김영선 100,000	박상원 50,000	설경자 225,911	유재호 10,000	이필선 100,000	최성현 80,000
권숙향 500,000	김용안 23,060	박상철 100,000	성미란 200,000	유춘자 50,000	이한신 500,000	최순희 100,000
권영세 50,000	김윤하 310,000	박선영 50,000	소민경 150,000	유홍식 30,000	이해금 50,000	최송 2,820
권태희 300,000	김원태 50,000	박수연 30,000	소진호 20,000	윤경미 30,000	이항선 10,000	최윤정 50,000
권현우 14,000	김유경 300,000	박순양 20,000	손정희 노원 83,340	윤덕현 100,000	이호균 50,000	최윤정 67,33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윤분 50,000	박승지광주 10,000	손지영 30,000	윤명실 1,000,000	이희영 500,000	최이준 1,000,000
김경미 50,000	김은숙 100,000	박시현 32,000	손현숙 500,000	윤미경 50,000	인도제3세계사업	최재운 노원 37,350
김경미 30,000	김은숙 100,000	박옥지 30,000	손현숙 500,000	이귀숙 20,000	10,000	최형진 40,000
김경범 4,000	김은정 320,000	박완임 20000	손현희 9,635	이규빈 500,000	이동진 100,000	임성희 30,000
김경아 100,000	김은주 50,000	박유란 100,000	손현희 10,000	이동진 100,000	장미현 1,000,000	장석현 양평 53,730
김경희 5,000	김이영 100,000	박윤정 30,000	송정숙 800,000	이래열 30,000	장석현 양평 53,730	장세영 20,000
김남훈 100,000	김정수 150,000	박정숙(노원)	송종수 100,000	이리라 720,000	장세영 20,000	장순석 10,000
김남금 100,000	김정재 1,000,000	300,000	신동근 50,000	이미경 1,000,000	장순석 10,000	장장원 100,000
김도경 50,000	김지영 20,000	박정심 30,000	신동현 20,000	이미향 10,000	장장원 100,000	장철수 50,000
김동우 5,000	김한숙 25,000	박종덕 100,000	신승희 노원 50,000	이보경 50,000	장철수 50,000	장현련 10,000
김말숙 10,000	김향희 300,000	박현진 100,000	신재영 50,000	이소정 191,824	장현련 10,000	전재현 5,500
김명규 100,000	김현아 오즈약국	박화자 10,000	신재은 10,000	이승용 20,000	전재현 5,500	정경숙 300,000
김명호 300,000	100,000	박희영 1,000,000	신종섭 50000	이승호 40,000	정경숙 300,000	정경아 30,000
김문근 30,000	김현정 40,000	반미정 30,000	심백/내팔 10,000	이영숙 100,000	정경아 30,000	정길원(정정옥)
김미경 30,000	김형숙 113,023	배동규6047	아무개 50,000	이영우 50,000	정길원(정정옥)	1,000,000
김미성 50,000	김홍필 100,000	100,000	안병석 15000	이영화 30,000	정미진 10,000	정석우 서초
김미영 200,000	나경원 100,000	배영섭 100,000	안병석 5,000	이완석 10,000	정석우 서초	1,000,000
김미옥 3,000	나경주 100,000	배성호 50,000	안병주, 김희자	이요한 50,000	정석우 서초	1,000,000
김미윤백일 300,000	나연우 10,000	배수정 50,000	20,000	이원형 10,000	정석우 서초	1,000,000
김민경 10,000	남주미 30,000	배순선 200,000	안자현 100,000	이유진 20,000	정스런 50,000	정스런 50,000
김민경 10,000	네팔지진구호 10,000	배진숙 60,000	안재만 80,000	이은경 100,000	정토희 28,000	정현옥 60,000
김민수 30,000	노수영 20,000	백건구 20,000	안정원 500,000	이인철 10,000	정현옥 60,000	제순희 30,000
김병진 30,000	노하진 20,000	백명아 8929	안창을 70,000	이재만 20,000	제순희 30,000	조귀선 20,000
김삼선 3,000	대동어린이집	24,510	양승돈 100,000	이정순 100,000	조귀선 20,000	조양순 60,000
김석희 400,000	154,940	백상봉 100,000	양희웅 250,000	이정아 500,000	조양순 60,000	조영자 20,000
김성식 42,280	도연가마 50,000	백효원 양평 14,630	오금실 16,000	이정여 5,000	조영자 20,000	조원성 60,000
김성호 50,000	류수진 30,000	변동해 10,000	오금옥 10,000	이주영 50,000	조원성 60,000	후원금 100,000



## 해외JTS 후원금 (2015. 9. 01. ~ 2015. 10. 31.)

<b>미 국 J T S</b>	&FREDERICK C	김지현	\$30.00
<b>2015년 9월</b>	SCHIEFFEL	김기현	\$100.00
KYUNG J KIM	\$5.00	정춘자	\$100.00
임선희	\$50.00	KYUNG J KIM	\$5.00
장영경	\$20.00	SUN HEE KIM	
노유경	\$50.00		\$100.00
A&J Seattle, LLC		노유경	\$50.00
	\$40.00	박승용	\$30.00
무장보 - 현금	\$240.00	김학노/김순미	\$50.00
시애틀 정토회	\$100.00	임선희	\$50.00
오숙진	\$100.00	무주상	\$5.00
한정희	\$200.00	박경배	\$100.00
A&J Seattle, LLC		OLIVIA LEE	\$800.00
	\$40.00	김부연	\$2,000.00
무장보 - 현금	\$10.00	이종경	\$400.00
A&J Seattle, LLC		이종순/한성후	\$100.00
	\$40.00	이종순/한성후	\$100.00
무장보 - 현금	\$100.00	권희정	\$500.00
Michelle Kim	\$50.00	ARDEN LEA	\$198.56
김재명	\$15.00	양승윤	\$100.00
박경배	\$100.00	전삼전	\$100.00
Lauren Carre		LA JUNGTO	\$28.00
	\$100.00	하정연	\$120.00
무주상	\$80.00	조주연	\$60.00
<b>미 국 J T S</b>		김점숙	\$200.00
<b>2015년 10월</b>		임정민	\$300.00
LAUREN CARRE		이원심	\$100.00
	\$300.00	권희정	\$100.00
FREDERICK C		김양희	\$40.00
SCHIEFFEL	\$30.00	백인숙	\$20.00
박승용	\$30.00	김혜진	\$30.00
이동영	\$400.00	이지형	\$50.00
MICHAEL W YANG		오미영	\$100.00
	\$62.00	이태욱	\$50.00
김학노/김순미	\$50.00	남희정	\$60.00
JUNG IE JUN	\$30.00	이정희	\$100.00
SOONJIN		김기남	\$100.00



## 나눔저금통 현황 (2015. 09. 01. ~ 2015. 10.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 강릉

강릉법당 67,330

### 거제

거제법당 220,610 거제법당 274,230 거제법당 160,360

### 경산

장선옥 30,840 허태숙 16,420

### 경주

경주법당 215,950 경주법당 30,000

### 광명

무명 31,440 이상진 33,740

### 구미

김정화 58,600 무명 84,140 이재현 25,040 최명옥 23,110 최희심 26,570

### 기장

기장법당 164,300

### 김천

김찬법당 88,830

### 남양주

박명희 21,710 왕애숙 17,100

### 노원

김용안 23,060 무명 21,810 무명 108,000 무명 8,530 무명 28,700 무명 37,410 무명23,720 무명 25,000 불불대저녁 33,000 손정희 83,340 최재윤 37,350

### 대구

김상현 21,400 노현승 25,770 데레사소비센터 9,900 무명 61,120 무명 22,490 무명 15,890 무명 29,250 박옥경 28,900 방일형 31,050 소망어린이집 222,210 임금실 49,850 정미영 13,500 조옥분 50,000 한정우 32,260 ok마트각산점 16,060

### 대구남산

남산법당 86,440

### 대전

대전법당 242,870

### 대전

김동희 25,750 김영숙 24,830 김옥연 103,630 김은경 11,910 동촌한의원 77,700 동촌한의원 79,040 무명 56,690 무명 144,920 석정호 21,250 우삼이 25,480 유미숙 24,630 이기자 22,100 이명희 24,400 이순덕 15,640 이은숙(공주) 30,040 이형서 16,940 전미경2개 34,700 정영희2개 36,350 정영희 10,980 정정숙 27,420 조장숙 18,680 조주호 26,500 진복문 13,910

### 도봉

박동숙 36,810 신수희 20,920 조경란 49,280

### 동래

강희준 21,040 강희준 25,020 김갑선 22,080 김미숙 27,810 김선주 29,500 김순점 21,370 김영미 20,660 김이숙 14,360 김행란 34,280 김혜례 43,310 류숙희 22,350 무명 79,200 무명 8,760 박성호 30,400 박성호 15,100 박성호 28,360 박영귀 22,680 송현주 155,660 이나금 188,830 이순임 19,990 이슬주 12,280 이아지 22,900 이왕진 62,860 이우진 33,060 이해영 22,840 정숙화 23,240 최정임 5,490

### 마산

노태곤 31,940 민정임 23,230 박주원 29,170 천영희 35,920 최태범 36,350

### 문경

고재숙 27,500 우치구 28,300

### 방어

김연옥 33,810 성수경 32,350 정대균 29,950

### 부사

무명 27,520 무명 10,810 부사법당 42,000 이근

범 14,300 장병윤 48,020 장병윤 15,910 정우상 13,890 정우진 12,780

### 부천

김인애 32,050 박정원 26,950 부천법당 55,060 지은영 27,050

### 부평

드림스타트센터 84,410 신민서 24,820

### 분당

분당법당 96,270 분당법당 55,810

### 사하

사하법당 102,290

### 서면

강순희 17,160 무명 75,350 박미자 17,440 박부식 27,060 이선희 9,890 이옥정 41,640 전영은 23,420 전재홍 18,550 조문숙 26,280 주영진 29,730 진술 31,920

### 서산

서산법당 23,930

### 서초

강민준 27,600 강홍목 35,240 고애령 34,300 고은실 24,940 공수영 23,420 권소희 21,750 권용범 22,450 김광호 19,000 김명선 19,500 김명환 29,550 김봉식 27,000 김소희 36,840 김은순 36,500 김태숙 15,610 노랑나비 27,000 류금선 7,860 무명 4,450 무명20개 428,560 무명22개 692,860 무명2개 54,070 무명6개 193,210 무명6개 130,200 박경주 12,010 박선영 12,100 박지우 36,100 박지은 32,310 변미정 20,420 서순석 34,160 서초법당 728,450 심지원 19,000 안나미 22,300 안용희 22,000 염태하 27,330 엄홍석 29,780 오선옥 21,240 유효근 40,200 윤은지 19,150 이경숙 20,000 이두희 22,610 이민주 33,830 이미애 19,700 이예순 5,500 이은남 26,800 이재윤 19,160 이종식 54,000 이채희 37,700 이효정 21,850 장경미 20,910 전의순 15,950 정기현 29,900 정소는 42,600 정혜

정 31,000 주성수 23,540 최경오 69,470 추문에 30,680

**서현**  
서현법당 59,260 서현법당 25,180

**성동**  
성동법당 22,300

**성서**  
성서법당 43,410

**세종**  
세종법당 17,030

**승파**  
무명 4,790 무명 15,650 양성순 25,175 진인자 12,770

**안산**  
안산법당 230,060

**안양**  
무명 42,590 무명 26,610 이소현 14,760 최은미 15,570

**양덕**  
양덕법당 187,300

**양산**  
감남순 32,460 서정숙 22,910 유영길 39,150 최경환 38,200

**양천**  
양천법당 250,460

**양평**  
박수현2,550 백효원 14,630 이용순 24,000 장석현 53,730 최형원 16,940

**영주**  
김하정 15,650 신광섭 61,500

**왜관**  
복삼농협 10,400 복삼농협금오지점 98,210 채민경 24,370 칠곡어린이집15개 152,920강명규 7,410 경속 14,550 김예영 13,000 무명5개 46,020 박건형 17,310 서유미 7,980 석상민 5,230 솔 14,350 이윤이 3,980 지원 8,280 태경 14,810 허혜 19,320

**울산**  
강사병원 16,500 강사병원 39,210 권교중 29,880 김태형 41,140 무명 30,370 무명 66,630 무명 60,590 문영 9,880 문영 14,500 정필향 26,500 정지현 60,680 한순자 22,860 한원희 30,980 황선미 14,390

**일산**  
일산법당 104,670

**전주**  
군산돼지저금통 113,790 전주법당 30,480

**정읍**  
김영이 6,170 김이순 7,650 서순석 17,070

**제주**  
강임하 15,410 강재연 62,860 김성부 15,350 김우정 20,390 김진희 30,050 부영환 66,110 송명섭 18,620 신민자 36,310

**제천**  
제천법당 374,050

**중랑**  
김정자 17,580 무명 38,240 이범훈 62,130 정명희 14,980

**진주**  
진주법당 376,770

**천안**  
천안법당 143,510 천안법당 250,640

**청주**  
청주법당 78,150

**춘천**  
춘천법당 86,850

**대백**  
김순녀 40,500

**통영**  
통영법당 73,430

**파주**  
유춘자 46,740

**평택**  
평택법당 26,700

**해운대**  
해운대법당 285,120

**화봉**  
화봉법당 233,670

**흥덕**  
흥덕법당 926,990

**기타**  
기은숙 64,860 과천고도서부 28,210 김성식 42,280 대동어린이집 154,940 박시현 32,000 백영아 24,510 실래국수 31,240 손현희 9,635 우경미(창경초3-3) 31,070 이유미 26,780 정인재 12,460 조대영 88,550 최윤정 67,330 최현정 40,670 포항수협 10,860 하수화 31,260 한승명실래 18,800 황혜영 459,420

**거리 모금 현황**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9/19거리모금 208,350 거제 1,209,050 경기광주 135,040 경산 257,700 경주 432,370 광명 236,500 구리 376,000 구미 792,350 기흥 117,000 김천 527,890 김해 754,540 남양주 329,870 내서 135,830 노원 819,040 당진 384,510 대구 2,339,850 대연 299,460 대전 620,140 도봉 433,480 동래 662,960 마산 722,390 문경 140,800 부천 379,060 부평 404,060 분당 255,640 분당수정 160,930 사천 58,400 사하 60,000 상주 66,970 서대문 109,850 서초 1,945,000 서현 299,830 성동 132,500 성북 14,100 성서 53,310 세종 189,000 송파 355,850 송현 942,600 수원 290,200 안산 57,800 안양 232,340 양산 219,430 양천 493,650 양평 446,700 여수 29,200 영주 198,350 용인 254,590 울산 307,310 의정부 134,440 일산 107,000 장수 230,600 전주 283,900 제천 202,000 중랑 385,760 진주 666,710 진해 145,630 창원 636,810 천안 484,600 춘천 94,770 태전 254,400 평택 243,210 포항덕산 745,810 포항양덕 510,400 해운대 507,640 홍성 110,120 화명 101,050 화봉 91,600



#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 한해 JTS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내일의 희망을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원자  
[주의사항] 12월 31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 확인하는 법

- ①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 로그인합니다.
- ② [정보수정]을 클릭하여 [기부금영수증신청] 항목에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아니오”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정보수정]을 클릭하고 “예”로 바꿉니다.
- ④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후원계좌에 입금 후 연락을 주지 않으신 분은, 12월 24일까지 전화 주시면 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 (02)587-8995 (운영시간 10:00 ~ 16:00)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시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인도 및 제3세계 돕기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필리핀 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북한 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JTS 전체 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성명 (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주소 ( <input type="checkbox"/> JTS의 소식지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	

### 3. CMS 후원금 인출계좌 후원금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년	월	일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인가, 예금주의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은행명	예금주 연락처 :			
	후원금 출금일			
후원금 지정출금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매일

- CMS 후원회원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종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JTS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 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 출금일인 10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17일과 25일에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 JTS 후원계좌 안내

별첨 후원금 계좌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자세한 약관은 [www.jts.or.kr/donation/cms.html](http://www.jts.or.kr/donation/cms.html)) 을 참고하세요.)  
본인은 (사)한국제이티에스에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단, 납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한국제이티에스와 협의하여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출금이체, 연금,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한국제이티에스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후원금의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회원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납부 | 수신행황 | 상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우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우 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고우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제공대상: (사)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CMS 출금이체 (송인 및 정산) | 제공정보: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계좌번호,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까지, 단,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제공대상: (주)유니스트트웨이 | 제공목적: 회원관리, 후원금 결제, 온라인 회원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발행 | 제공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제공대상: 국제정 | 제공목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관기간: 5년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